

현대제철 순천공장, 'H형 빛나는 도로' 협약식 & 기금 전달

횡단보도 대기선 LED 바닥형 보행자 신호등 설치 시민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교통사고 사망률 감소 순천공장 임직원 자발적 모금으로 4500만원 기부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5일 순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H형 빛나는 도로' 사업 업무 협약식 및 기금을 전달했다. 'H형 빛나는 도로' 사업은 횡단보도 신호 대기선에 LED 바닥형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제공과 순천시의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 등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한 현대제철 사회공헌 활동이다. 전달식에는 현대제철 한규현 상무, 순천시

백한순 도시디자인국장, 순천경찰서 허지은계장, 순천종합사회복지관 허규만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대제철 한규현 상무는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모인 기금으로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순천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다"라며,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이번 전달식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교통안전을 위해 사내 자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 진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번에 전달되는 기금은 4,500만원으로 순천공장 임직원의 자발적 기부로 마련된 기금이다.

순천시는 행정지원과 시설물 유지 관리를 순천경찰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상지 선정과 관련 법령검토를 한다. 순천종합사회복지관은 사업비 집행과 행정을 지원한다.

더불어, 현대제철은 'H형 빛나는 도로' 사업을 기금 활용 대표 사업으로 선정해 당진, 인천, 포항 등 사업장 인근 주요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조성을 실시할 예정이다.

순천=김승호기자



“기발한 전남선관위” 택배 테이프에 일정 새기고 투표 독려

우정청과 손잡고 총선 홍보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선거홍보용 종이테이프를 도내 각 시·군우체국에 비치했다. 종이테이프를 활용한 홍보는 전남선관위가 자체 기획한 것으로, 유권자와의 점점 강화를 통한 투표참여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남우정청과 협업을 통해 제작됐다. 4월10일 선거일까지 사용될 예정이다.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종이테이프에는 국회의원선거 캐치프레이즈와 사전투표, 본투표 일정, 선거일 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선거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한 끝에 고안해낸 것”이라며 “투표율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총선 투표율은 2016년 20



택배 테이프 이용한 선거 홍보. (사진=전남선관위 제공)

광주시, 노후 경유차 114대에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광주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 차량에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량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저감장치 부착 대상은 114대다. 사업비 3억 7000만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에서 6개월 이상 운행 중인 경유차량이다. 배출가스 5등급, 환경부 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에 따라 대당 250만~580만원이다. 본인부담금은 지원금의 10%인 27만~65만원이다. 신청기간은 11일부터 29일까지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과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로 온·오프라인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다음달 개별 통보된다. 저감장치 부착 후에는 2년간 의무운행해야 한다. 폐차 또는 저감장치를 떼 경우 보조금이 회수된다. 임행택기자

‘또 법정관리...’ 시공순위 105위 새천년종합건설 법인회생 신청

서울회생법원, 재산 보전·포괄적 금지명령 결정

시공능력 순위 100위권 진입을 눈앞에 뒀던 전남 소재 중견건설사가 자금난 압박에 법인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와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법인 회생을 신청한 전남 나주 소재 새천년종합건설에 대해 지난 5일 재산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법원 허가 없이는 회사 채권 회수와 자

제적인 자산 처분을 할 수 없다. 이후 법원이 회생 여부를 판단한다. 최종적으로 회생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기업은 파산(청산) 절차를 밟는다. 전남 나주에 연고를 둔 새천년종합건설은 1999년 설립돼 지난해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 평가 순위 105위를 기록한 중견건설사다. 시공능력 평가액은 2656억 원에 이른다. 새천년종합건설은 지난해 말부터 1년 안에

값아야 하는 단기 부채 비율이 크게 늘면서 자금 압박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누리집에 '회생절차 신청과 관련 채권자·수분양자에게 심려를 끼쳐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는 공지글을 게시했다. 한편, 지난 연말연시 광주·전남 소재 크고작은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 관리를 신청, 지역 건설업계에서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종합건설사 7곳과 전문건설사 63곳 등 70개 업체는 이미 도산했다. 오유나기자

전남 7개 대학서 '천원의 아침밥' 운영

목포대·순천대·동신대 등 기존 6곳서 초당대 추가

전남 7개 대학에서 올해 학생들에게 '천원의 밥상'을 제공한다. 전남도는 6일 "대학생들에게 1000원으로 아침밥을 제공해 높은 호응을 얻었던 '천원의 아침밥'을 올해도 추가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실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건강한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해 쌀 중심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는 사업으로, 올해 전남에선 7개 대학이 선정됐다. 전남도는 지난해 5개 대학과 협약을 맺고, 정부 지원금 외에 1000 원을 추가 지원해 전남 쌀로 만든 밥과 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토록 했다. 정부도 올해 지원단가를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했다. 참여 대학은 목포대, 순천대, 전남과대학, 동신대, 청암대, 전남대(여수·화순 캠퍼스) 등 기존 6곳에 초당대가 신규 선정돼 모두 7개 대학으로 늘었다. 서부취재본부 송준표기자



목포대 천원의 아침밥. (사진=전남도 제공)

한국연금진흥재단
Korea Labor Pension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해능력에서 재인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연도	보험료 부담	건강보험 혜택	배율
5분위 고소득층	240,833원	1.1배	1.1배
4분위	125,531원	1.7배	1.7배
3분위	79,147원	2.1배	2.1배
2분위	48,103원	2.7배	2.7배
1분위 저소득층	26,697원	5.3배	5.3배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총합의 10%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